



광주 품은 국립공원 무등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국립공원 무등산이 넉넉한 '어머니의 품'처럼 광주 시가지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정겹다. <헬기조종=광주시소방항공대 문연석·이정곤 기장> /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새총리후보에 정홍원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경호실장 박흥렬...2차 인선 막바지 작업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에 정홍원(69) 전 새누리당 공직후보추천위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65) 전 국방장관, 청와대 경호실장에는 박흥렬(63) 전 육군참모총장을 각각 인선한 데 이어 2차 인선 발표를 앞두고 검증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특히 내각과 청와대에 들어갈 인사들이 다수 포함될 2차 인선에서는 박 당선인이 내건 '국민대통합' 취지에 맞게 호남지역 인사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홍원
선시한 인사로 평가되었으나 박 당선인과의 관계 등 위상으로 봤을 때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인사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리형' 총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3명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 김 실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확고한 안보관과 소신으로 굼직한 국방현안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국가안보위기관에서 국방안보분야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김 전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의 연령대는 평균 66세로 비교적 고연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검찰과 군출신은 우대했다는 분석이다. 또 출신 지역을 보면 정 후보자(경남 하동)와 박 내정자(부산)가 부산·경남(PK) 출신이고, 김 내정자(광주)가 호남 출신이다. 박 당선인의 고향인 대구·경북(TK)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을 점령하라”

전대 앞두고 “호남정치력 복원” 목소리 광주·전남 의원들 대표·최고위원 도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전'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지난 대선 패배로 지역 정치권의 남부한 현실과 한계가 확인되면서 지역 민심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역 민심은 민주당에 병소를 보내면서도 변방에 머물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 '분노하고 도전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을 점령하라'는 각오로 지역 정치권이 강력한 연대와 도전을 통해 호남 정치력의 복원과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5면> 여기에는 지역 정치권이 과거와 같은 계파별 이해관계나 정치적 안주를 선택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민심은 지역 정치권과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신당 창당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가시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적극 지지하겠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역 민심의 흐름에 지역 정치권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강령에 머물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 '분노하고 도전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을 점령하라'는 각오로 지역 정치권이 강력한 연대와 도전을 통해 호남 정치력의 복원과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이용섭 의원(광산 을)은 11일 "남은 정치 일생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시도민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라며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도부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에는 호남 정치권

이 민주당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강력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이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할 때며 호남 정치력의 복원을 위해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승남 의원(고흥·보성)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이 민주당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도부 진입을 위해서는 지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크겠지만 호남 주자들이 자체 경선 등을 치러, 희생과 감동을 기반으로 하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회동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민심과 지역 정치권이 '도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오는 18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도부 경선과 관련, 어떠한 결과물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지역 고용시장 '봄바람'

광주·전남 공무원 900여명 채용
기아차 생산직 인력 수백명 모집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생산직 사원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올해 지역 고용시장에 '봄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행정안전부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신규 공개채용 계획'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해 206명보다 44명(21%) 증가한 250명, 전남은 지난해 493명보다 161명(33%) 늘어난 654명의 공무원을 각각 선발한다. 올해 지방공무원 전체 채용 인원은 1만2169명으로 지난해 1만

330명보다 1389명(18%) 늘어났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9873명, 특정직 1623명, 기능직 109명, 별정직 12명, 계약직 552명이다. 이중 일반직은 지난해 8758명에 비해 1115명(13%) 늘어 지난해 2005년(1만275명) 이후 최대 규모다. 공채 일정은 다음달까지 지자체별로 공고하며 서울시를 제외하고 행안부에 시험 출제를 위탁하는 16개 시·도 9급 공채시험은 8월 24일, 7급 공채시험은 10월 5일 치러진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62만 대 생산 체제 본격 가동을 앞두고 생산직 사원을 모집한다. 기아차 광

주공장은 지난 9일 생산 인력 '000명' 선발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고교 졸업 이상이나 전문대 졸업 이하의 학력에 남자는 병역을 마쳐야 하고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지원서는 오는 15일까지 기아자동차 채용포털(recruit.kia.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차 서류전형에 이어 면접, 신체검사, 입사시험, 적성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마감
2월 15일(금)
입학문의 062)605-1112
062)605-1023

www.hpdynastycc.co.kr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함평 다이너스티CC

친환경 나비고장 함평에 오시면
사계절 푸른 양잔디,
한쪽의 수채화 같은 함평 다이너스티가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 061-320-7700-7777